

# “尹정부 5년간 중대재해 발생 OECD 수준으로 감축”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사망율 0.43...OECD 거의 두배 “처벌 아닌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논의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당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

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또한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이재명 대표 진실 고백하라”...대장동 수사 공세 강화

###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사과 촉구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위선의 가면 벗고 진실을 고백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강도가 세지는 것과 맞물려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나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대선 전부터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대장동 의혹’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당사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연기와 소로 감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위선과 거짓의 가면 연기를 견어치우고 진실을 고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비대위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 뒤에 숨어 ‘나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수사 비협조와 꼬리 자르기로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깨닫기를 바란다”며 “땀

땀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감 표명을 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탐사가 제기한 지라리 수준의 허위 사실을 근거로 김의겸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향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며 “최근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국민께 정중한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진석 “예산안 기한내 처리가 바로 민생정치”

### “복지망 확충 예산 투입 시급”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재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촌 다세대 주택 모녀 사망 사건’과 ‘인천 10대 형제 사망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

지 1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 경제에 촉진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경제를 아무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분회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p 올라 36.4%

###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60.8%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포인트(p) 오르며 4주 만에 30% 중반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렌드 의뢰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4%, 부정 평가는 60.8%로 나타났다.

지난주 보다 긍정 평가는 3.0%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0%p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8.8%p ↑), 광주·전라(7.4%p ↑), 서울(4.3%p ↑), 남성(4.1%p ↑), 70대 이상(4.6%p ↑), 30대(4.1%p ↑), 50대(3.3%p ↑), 20대(2.8%p ↑), 40대(2.3%p ↑), 정의당 지지층(4.6%p ↑), 중도층(3.1%p ↑), 진보층(2.9%p ↑)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8%p ↑)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번 지지율 상승 폭

(3.0%p)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0.7%p ↑, 59.4%→60.1%)보다 중도층(3.1%p ↑, 31.7%→34.8%)이 대통령 국정 평가 상승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출범 후 첫 조사에서 50.0%를 기록, 7월 1주(34.1%) 이후부터는 넉 달 넘게 20% 후반~30% 초반을 기록해오던 중도층 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30% 중반대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